



24일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2011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400m 자유형 결선에서 박태환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 물오른 박·태·환 400m '세계 지존'

1번 레인 약조건 받고 괴력의 레이스 ... 200m서도 금 기대

'마린 보이' 박태환(22·단국대)이 가장 불리한 위치인 1레인에서 기적의 금물살을 갈랐다. 박태환은 24일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1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3분 42초04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강력한 우승후보이자 예선 전체 1위로 통과한 중국의 쑨양(3분43초24)은 막판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지만 끝내 박태환을 따라잡지 못했고, 세계기록 보유자인 파울 비더만(독일·3분44초14) 역시 박태환을 따라잡지 못했다. 박태환의 결선 전략은 지난해 광주우 아시안게임 때와 마찬가지로 초반 스피드였다. 선수들이 기피하는 가장자리에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스 초반 활차게 물살을 가르며 1위로 50m 지점을 통과했다. 1번 레인은 4.5번 레인과 달리 중간 레인에 있는 선수들의 물결과 함께 수영장 밖에서 나오는 물결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기록적인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경기 초반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박태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250m 구간이었다. 경쟁자들의 추격이 거세진 가운데 순식간에 4위로 처지며 힘에 부친 모습을 보였다. 박태환은 하지만, 레이스 후반 들어 무서운 뒷심을 보여줬다. 300m 구간에서 다시 선두로 복귀한 박태환은 이후 스트로크가 빨라지며 순식간에 1위로 치고 나갔다. 특히 마지막 350m 구간에서는 2위권과 2~3m의 차이를 보였고, 쑨

연도	대회명	기록
2005년	3월 동아대	3분50초37
	10월 전국체전	3분50초16*
	11월 마카오 동아시아인게임	3분48초71*
2006년	8월 펜시픽선수권	3분45초72***(금메달)
	12월 도하 아시안게임 결승	3분48초44 (금메달)
2007년	3월 멜버른 세계선수권	3분44초30***(금메달)
2008년	4월 동아대	3분43초58**
	8월 베이징올림픽 예선	3분43초35
	베이징올림픽 결승	3분41초86***(금메달)
2009년	7월 로마 세계선수권	3분46초04 예선 탈락
2010년	2월 뉴사우스웨일스 스테이트오픈	3분45초03 (금메달)
	8월 펜시픽선수권	3분44초73 (금메달)
	11월 광주우 아시안게임 결승	3분41초53***(금메달)
2011년	6월 샌디에고 국제그랑프리대회	3분44초99 (금메달)
	7월 상하이 세계선수권	3분42초04 (금메달)

아시아 기록 장린(중국) 3분41초35  
 세계 기록 파울 비더만(독일) 3분40초07

## '앸 물개' 조오련 추모 땅끝 바다 수영대회

1000여명 참가 기량 겨뤄  
신경대서 3관왕 MVP 선정

신경대(31·빛고을 수영클럽)씨가 '제2회 조오련배 땅끝바다 수영대회(대회장 박상대)' MVP로 선정됐다. 신씨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해남군 송지면 땅끝 송호해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3.3km 부문 30대 남자 1위 ▲500m 부문 30대 남자 1위 ▲단체전 1위를 차지하면서 3관왕에 올랐다. 4인 1조로 1.2km 레이스를 펼친 단체전에서는 광주 빛고을 수영클럽 A팀이 정상상을 차지했고, 2위는 순천 돌방개 수영클럽, 3위

는 광주 빛고을 수영클럽 B팀에 돌아갔다. 3.3km 부문 남자 우승자는 ▲중등부 장덕 ▲고등부 윤영관 ▲20대부 정동희 ▲30대부 신경대 ▲40대부 김호상 ▲50대부 표용석씨다. 여자부에서는 ▲중등부 김태양 ▲고등부 문지영 ▲20대부 조아라 ▲30대부 홍수미 ▲40대부 김용희 ▲50대부 이남순씨 등이 1위를 차지했다. 남자부 500m에서는 ▲초등부 허재혁 ▲중등부 장덕 ▲고등부 윤영관 ▲20대부 손성욱 ▲30대부 신경대 ▲40대부 우성길 ▲

50대부 표용석씨 등이 정상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초등부 박수진 ▲중등부 김태양 ▲고등부 이나라 ▲20대부 조아라 ▲30대부 김연암 ▲40대부 김명자 ▲50대부 주정남씨 등이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총 1000여명의 참가자가 몰려 그동안 같고 달은 기량을 겨뤘다. 대회에는 특히 고 조오련씨의 차남 수영 선수 조성모씨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조씨는 유족대표 인사에서 "이렇게 아버

님의 뜻을 이해해주는 바다수영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내년에 대한해협을 횡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오련배 땅끝바다 수영대회는 지난 1970년과 1974년 아시안 게임 2관왕에 오르고, 대한해협과 도버해협을 횡단한 해남 출신 수영선수 고 조오련씨를 기리기 위해 지난 해부터 열리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해남군 송지면 땅끝 송호해변에서 지난 23일 열린 '제2회 조오련배 땅끝바다 수영대회' 참가자들이 바닷속으로 힘차게 뛰어든다. /해남=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김경태 日 무대 시즌 첫 승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해 일본 골프에서 2년 연속 삼관왕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김경태는 24일 일본 홋카이도의 노스 골프장(파72·7115야드)에서 열린 JGTO 세가세미컵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잡아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 일본의 스타 이시카와 료(11언더파 277타)를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번 시즌 아홉 번째 대회이자 여섯 번째로 출전한 JGTO 대회에서 처음 우승컵을 들어 올린 김경태는 시즌 삼관 5천300만엔을 쌓아 삼관왕 1위로 올라섰다. 지난 6월 투어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재범(29), 미즈노 오픈에서 우승한 황중권(19)에 이어 시즌 세 번째로 한국 선수가 차지한 우승이다. 4타 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에 나선 김경태는 챔피언십에서 이시카와와 동반플레이를 펼치며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줬다. 이시카와가 전반에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묶어 3타를 줄이며 추격했지만 김경태는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골라내며 선두를 지켰다. /연합뉴스

**엔틱 식탁, 좌탁, 거실장, 침대**

ITALY

SINCE 1992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ITALY

**카우치-20종류**

ITALY

홍스페이스 SPACE 062-226-7567

동구 장동 58-15 동구청-전남여고 사이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